



남자는 모두 늑대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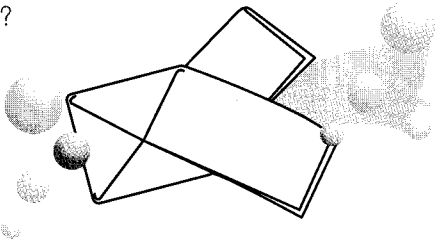
옥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전 중3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못볼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며칠 전 아마 개학한 다음날 영어시간이었는데 첫 시간이라 아이들이 무척이나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있는 한 남자아이가 손을 바지속으로 넣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 순간 그 아이가 자위중이란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고, 그 순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쳐 버려서 전 놀라서 옆드려 버렸습니다.

그 친구도 그 짓을 그만두었고, 그 뒤로 전 그 아이와 마주칠 수가 없고, 그 아이도 절 피하고, 어떻게 학교에서 그것도 수업시간에 그러고 있는 걸까요? 전 남자가 갑자기 이상해 보였어요. 남자들은 다 늑대인가요?



한 창 사춘기의 예민한 여학생인데, 교실에서 못볼 것을 보고 말았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수업 시간에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OO님과 얼굴을 마주치고 말았으니, 서로 고개를 돌리고, 만나면 어색해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특히 청소년기는 일생에서 성적으로 가장 강한 충동을 느끼기도 하므로, 짝꿍은 장난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성적 행위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위 행위로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교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 남

학생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군요.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들의 약 80%는 자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위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를 할 때 혼자서 조용히, 은밀하게 하는데, 그 남학생은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해서 OO님에게 불쾌감을 주었군요. 그런데 OO님도 놀라서 얼굴을 숙였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남학생은 얼마나 난처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직 학기초이므로 앞으로 일년을 같이 얼굴을 보고 만나야 하고, 같은 학교 동창생이면 어른이 되어도 만날 수 있는데, 서로 외면을 한다면 두 사람 모두 괴롭겠지요?

아마도 그 남학생도 OO님의 얼굴도 못쳐다볼 정도라면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남자 친구의 한번의 실수를 이해하고, 혹시 그 남학생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없나요?

꼭지나 말로라도 “다음에는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장소에서 해결해”라고 한 마디라도 먼저 건네 준다면 아마 사이도 어색해 지지 않고 그 남학생은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다시는 교실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원치 않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어른이 된 것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그야말로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에 서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실수를 딛고 다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구분할 수 있는 현명함과, 실수에 주저앉지 않고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지닌 청소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